

장관 후보자 청문회 사흘째에도 여야 충돌 격화

국힘 “강선우·이진숙 사퇴” 촉구
민중 “인신공격 몰두 ‘내로남불’”
대통령실, 여론 종합 판단 전망



착석하는 이진숙 후보자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시작에 앞서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사흘째인 16일에도 여야는 각종 의혹과 도덕성, 자질 등을 둘러싸고 격돌했다. 여야는 법무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된 이날 시작부터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로 설전을 벌였다.

특히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국민의힘이 질의 시작 전부터 후보자의 자료 제출, 증인·참고인 채택 여부를 놓고 물고 늘어져 40분 넘게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총남대 총장 임명 당시의 윤리위원회 평가 서류와 자녀 조기유학 의혹 관련 직계비속 출입국 기록, 연도별 유학비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공격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들어 “내로남불”이라며 맞섰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이 후보자가 요구된 427건 자료 중 19건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역대 후보 중 가장 높은 제출률인 95.6%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5만원권과 5천원권 지폐를 내보이며 “부모들이 신사임당, 율곡 이이 선생을 보며 ‘내 자식 만큼은 훌륭하게 키워야겠다’고 했다. 산업화·민주화를 열정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교육”이라며 “이 후보자가 두 딸

의 조기유학으로 국내 공교육을 경험하지 못한 점에서 장관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는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며 논문 표절 의혹, 자녀 조기유학 사실 등에 대해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민주당 의원 제안에 따라 자

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이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2·3 불법 계엄 사태와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으로 비화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불법 계엄 사태와

내란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몰아붙이면서 정 후보자의 장관 임명 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관계자들을 신속히 처벌해야 한다고 공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찰개혁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박탈함으로써 시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추진하는 각종 입법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방북 이력 등 두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를 상대로 ‘북한이 주적 인가’라는 질문 등으로 대북관을 집중 추궁하자, 민주당은 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성격과 맞지 않는 색깔론 공세라고 반발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소명과 국민 여론을 지켜보고 임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낙마 사유라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실은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에서 달라진 부분은 없다”면서 판단 시점에 대해서도 “아직 시점은 결정된 바 없고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하남산단 지하수 발암물질 논란 ‘일파만파’

10억원 투입 3년간 조사 불구 결과 은폐
市·광산구 “TF 가동”...‘뒷북 행정’ 비판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넘는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사실이 2년 간 사실상 은폐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해당 지역 관할구인 광산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용역을 실시하고 문제를 확인했음에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6일 광주 광산구 등에 따르면 ‘하남산단 지하수 토양오염 조사 용역 보고서’는 2023년 6월 작성돼 광산구에 제출됐다.

보고서에는 하남산단 지하수에 1급 발암물질인 TCE(트라이클로로에틸렌)와 PCE(테트라클로로에틸렌)가 기준치보다 최대 46배, 28배 가 넘게 오염돼 있는 사실이 담겼다.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3년 넘게 조사한 결과였지만 광산구는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고, 광주시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공공기관 생산 자료는 원칙적으로 용역 결과를 온라인에 공개해야 하는데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시민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사장된 셈이다.

이 보고서는 2년 간 서고에 묵혀있다가 최근 논란이 된 이후에서야 공개됐다.

그 사이 광산구가 마련해야 하는 지하수 오염 대책이나 확산 방지 대책 등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용역 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광산구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보 공개가 중요하다는 공직자들의 인식이 낮은 데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은 구조적 문제가 기인한다는 것이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오주섭 사무처장은 “행정에서 불리한 정보를 공개하면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하는데 누가 공개하려고 하겠느냐”며 “공개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와 광산구는 관련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등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즉각 대응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박병구 광산구청장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이 사실을 알리는 데 소홀했다”며 “하남산단 노동자와 인근 거주민에게 걱정을 안긴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광산구 산업단지 지하수 오염 대책위원회는 이날 광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와 광산구의 지하수 발암물질 오염 방지는 직무 유기”라며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변은진 기자

“4명이 둘러업고 윤석열 데려와야”

정가 프리즘

혁신당 유재관 대변인, 조사 촉구

조국혁신당 유재관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특검은 윤석열이 말한 대로 실행해 내란 우두머리를 조사실로 데려와야 한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이 내란 특검 조사에 지속해서 불응하고 있다”며 “윤석열과 서울구치소장이 협잡을 했는지 특검의 인지 지휘도 실행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속에는 구인(拘引)까지를 포괄한다는 법원 판례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특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은 임의로 거부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은 12·3 내란의 밤에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둘러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쏘

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고 지시했다”며 “이제 그 자가 한 말을 그대로 되돌려 주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윤석열은 과거 검사 시절 ‘검사가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깡패’라고 천연덕스럽게 말했던 후안무치 대마왕인 자”라며 “특검은 불의가 체념과 무관심으로 삶을 짜온다는 점을 상기하며 타협 없는 원칙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수 기자

광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단가 5% ↑

광주시는 16일 “최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어린이집 0-2세 및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5% 인상,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상반기 단가 동결, 아동수 감소, 물가 상승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운영 안정화와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결정됐다. 인상액은 0-2세 아동은 2만·2천7천원, 장애아동은 2만9천원 수준이다. /변은진 기자

민간자격증 관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파크골프 모든 것!

실내연습장 완비

지도자 자격증 취득

- 모집기간 : 수시모집(1:1교육)
- 교육접수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 ▶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매주 2회 이상)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접수방법
농협 351-1286-9685-63(국제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2급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 H.P. 010-9163-7897 Tel. 062-369-0070

파크골프교육 (초보,중급,고급)

- 실내실습장(파크골프 스크린장)
1:1 책임지도(매주 2회 이상)
- 광주교육대학교 시민대학 강좌 개설
- 매주 토요일 09:00-11:30
- 매월1회 이상 파크골프 동호인 동행 전국구장투어



파크골프 샵 (골프채, 각종용품, 용구)



안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방향**